

조선시대 남자복식에 표현된 선(線)의 미(美)

都 周 衍 · 權 瑛 淑*

성심외국어대학 한국의상디자인전공 전임강사,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he Beauty of Line on Men's Costume in the Chosun Period

Ju-Yeun Do and Young-Suk Kwon*

Full-time Lecturer, Dept. of Korean Clothing Design, Sungsim Foreign Language Colleg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nal and external line beauty of men's dress of the Chosun period from the views of dress design and dress aesthetics.

1) External Line Beauty of Men's Dress of the Chosun Period

① Functional Beauty: Having the beauty of functional line in terms of convenience, action, effectiveness, practice and sanitation.

② Structural Beauty: Having the beauty harmonizing between lines of internal and external structures.

③ Ornamental Beauty: Having the beauty of simple line by matching accessories (*gat*, fan, *sejodae*, shoes) with a simple dress.

④ Wearing Beauty: Making tall-looking or expressing a mature masculine beauty by a visual mistake caused by a combin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structural beauty lines.

2) Internal Line Beauty of Men's Dress of the Chosun Period

Including a simple but natural beauty based on natural philosophy, the beauty of courtesy emphasizing official hat and dress and the beauty of dress having aesthetic consciousness with which people enjoy an idyllic life.

Key Words : functional beauty, structural beauty (line of external structure, line of internal structure), ornamental beauty, wearing beauty, natural beauty, beauty of courtesy, idyllic beauty.

I. 서론

한복은 한국 고유의 조형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평면재단에 의한 여유롭고 풍요로운 선의미를 가진다. 특히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제도에 의한 봉건 질서가 요구되는 사회로서 신분복식제도가 있었다. 남자복식은 특히 여자복식에 비해 복식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시되어 신분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남자

복식이 착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다양했던 남자복식의 선미를 고찰해 봄으로써 현대에 재해석되어 다시 태어날 남자복식의 제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선행연구인 줄고 "조선복식에 표현된 선(線)의 미(美)에 대한 고찰"¹⁾에 이어 조선시대 남자복식에 표현된 선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복이 가진 아름다움을 복식미학의 입장에서 고찰하자는 기본취지 아래, 첫째, 조선시대

1) 도주연, 권영숙,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선(線)의 미(美)", 복식문화학회 8권 2호, 2000.

남자복식의 외형적 선의미를 복식 디자인의 요건인 기능미, 구조미, 장식미, 착장미로 나누어 살펴보고 들쭉, 조선시대 남자복식이 지니고 있는 내재적 선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가 조선시대 전통남자복식의 미적특성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현대 한국남자복식 디자인에 응용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사상적 배경과 服飾美

조선시대 남자복식에 영향을 미친 사상적 배경으로 유교사상과 조선후기에 대두된 실학사상을 들 수 있다.

1. 유교사상

조선시대의 思想史의 潮流는 유교사상으로 고려 말엽 安珮에 의하여 도입된 이후 조선의 국시가 되었다. 주자학을 바탕으로 하는 통치양식은 덕치주의 또는 예치주의이며 유교의 명분론적 사고의 기초가 되는 正名思想을 바탕으로 한 실천덕목으로는 예 사상을 강조하였다²⁾. 복식에 반영된 유교사상의 표현은 유가복과 사해복 즉 관, 혼, 상, 제례의 의식절차에 따른 예복의 착용양상에서 유교사상과의 상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사해복과 유가복에 나타난 상징성과 음양오행사상은 조선시대의 복식양식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복식의 형식미와 내재미를 증식한 조선시대의 독특한 미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복의 선에 내재된 상징적 의미를 陰陽五行의 근거와 原理에서도 살펴볼 수 있으며, 음양오행사상은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의식, 나아가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쳐 왔고 현재도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선과 같은 봉건국가에서는 복식 자체가 階級性을 띠며, 신분 계층적, 사치 규제적, 事大의 측면에서 복식 금제가 내려졌는데 유교사상 하에서 복식 금제

는 금, 은, 직물, 복색, 가체에 대한 금제가 있으며, 상하, 준비, 귀천의 이층구조에 따라 강제성을 갖는 복식금제로 나타났다.

유교사상과 관련된 남자복식의 복식미는 관할한 포와 관모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직선적이면서도 관할한 형태감으로 여유있고 풍성한 복식미를 가진다. 조선시대의 포는 유교사회에서 예를 갖추는 대표적인 복식으로 사회의 내적 가치를 표현하고 사회 계층을 구분하는 한 수단이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포들이 발전하였고, 포류간의 영향으로 상호관계가 조선중기 이후 매우 긴밀해졌다.

2. 실학사상

예학은 16세기 중반부터 발전하여 17세기에는 예학이 심화되면서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치게 되었다. 17세기 후반부터는 실학이 성행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쳤는데 의계에 있어 포계의 간소화 등이 시기를 기점으로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의복형태의 변화폭이 크게 나타났다³⁾.

조선 중, 후기는 임진왜란(1592~1598)과 병자호란(1636~1637) 이후로 사회 변동과 체제의 재정비로 인해 궁중복과 관복의 중국양식이 국속화하여 고유복식이 표면에 재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⁴⁾. 봉건주의 모순과 지배층의 분열 항쟁, 문란해진 정치기강은 조선후기(1700~약 1850)를 불안한 상황으로 몰고 갔으며, 시대적 필연성에 의해 經世致用과 實事求是를 내세운 실학과 더불어 중산층 계급이 크게 대두되었다.

17세기부터 18세기에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어 자연경제에서 탈피, 화폐경제로 전환되었다. 상업도시의 출현, 시장경제의 발달, 신분제 변동을 가져왔고⁵⁾ 계층에 따른 부의 과시로 인해 당시의 복식 금제령과 연결되어진다. 남자 편복 포제의 문란 현상으로 양반전용의 도포, 창의 등을 하류층이 착용하기도 하였다. 사회 전역에서 일어난 서민의식의 확대와 서민 복식문화의 부각으로 복식의 상향전파 현상

2) 李善宰, "朝鮮時代 儒敎思想과 儀禮服研究 -男子 袍物 中心으로-", 복식 16호, 1991.

3) 권영숙, 이주영, "조선초·중기 여자 장의(長衣)제도 - 임란전후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제21호, 1995, pp.122~123.

4) 이경자, 「한국복식사론」, 일지사, 1983, p.15.

5) 김영숙, "18세기 여자저고리 옷길이 변화요인에 관한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9권 3호, 1986, p.10.

을 낳기도 하였다⁶⁾. 또한 실학 사상에 의한 실용화의 영향으로 조선후기 남자포제와 바지저고리의 형태가 활동성을 고려한 검소하고 절제된 복식미로 나타났다.

Ⅲ. 남자복식 선의 미

복식디자인을 하기 위한 계획, 수행, 평가의 디자인 과정은 기능적, 구조적, 장식적인 세가지 측면에서 조화되어질 때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⁷⁾. 따라서 남자의 포제인 도포, 직령, 두루마기, 관모, 바지저고리에 표현된 외형적 선의미를 기능미, 구조미, 장식미의 디자인 요건⁸⁾에 확장미를 더하여 복식 디자인의 측면⁹⁾에서 고찰한 후, 조선시대 남자복식의 외형적 선의 미에 깔려 있는 내재적 선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남자복식에 표현된 선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조선시대 전, 중, 후기의 시기구분은 복식변화의 기점이 되는 임란전 16세기 후기까지

를 조선전기, 17세기에서 18세기 전반까지를 조선중기,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19세기 후기까지를 조선후기로 보았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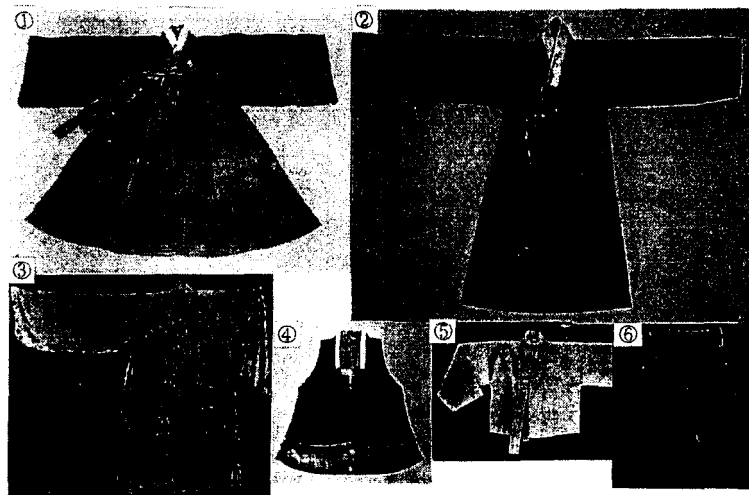
1. 외형적 선의 미

1) 기능미

(1) 편안성

남자 포제인 도포와 직령, 두루마기 (그림 1)의 실루엣은 H나 A형의 직선적인 실루엣으로, 인체가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유있는 선미를 가진다. 저고리와 포의 사선 깃은 목의 움직임이 편하며, 도포와 직령의 관할한 소매는 편안하고 우아한 선미를 나타낸다. 좌식생활에 편리한 바지의 풍성한 형태미는 착용시 직선적이면서도 곡선적인 실루엣을 나타낸다.

(2) 활동성



<그림 1> 도포, 두루마기, 직령, 배자, 바지, 저고리¹¹⁾

6) 백영자, 「한국의 복식」, 경춘사, 1992, pp.157~158.

7) Marian L, Davis, 「Visual Design in Dress」, Prentice Hall, 1980, p.12.

8) Marian L, Davis, 「앞책」, pp.12~27.

9) 이은영, 「복식의장학」, 교문사, 1993, pp.85~128.

10) 권영숙, 이주영, 「앞논문」, p.122.

11) 출처: ①②④ 「한국의 미」, p.15. p.17, p.19. ③⑤ 高福男, p.283. p.46. ⑥ 琴基淑, p.35.

도포의 뒤트임은 馬上時와 좌식생활에 활동성을 주면서 복식에 직선과 곡선의 유동미를 표현한다. 또한 뒷자락으로 인해 하의가 보이지 않도록 하여 복식의 미적인 면을 추구하고 있다¹²⁾. 직령 또한 폭 넓은 옆무의 장식적인 주름이 인체에 활동성을 높여 준다. 바지의 작은사폭과 큰사폭은 마름질을 바이어스 재단방법으로 인체의 활동성을 부여하며, 통넓은 바지부리는 각반이나 행전으로 활동성을 높여 준다.

(3) 효율성

한복은 직선형 재단으로 거의 모든 체형에 입혀 질 수 있으며, 마포의 도포는 기계사의 계복, 부모상의 상복, 본인 수의로 착용하여¹³⁾ 필요에 따라 의복 형태와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대를 물려 착용할 수 있는 남자복식의 효율성을 보여 준다. 또한 남자 포제인 철릭은 소매 한쪽에는 단추를 달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어 유사시 용복으로의 효율성을 갖춘 포제이다.

(4) 실용성

포와 저고리의 좌, 우에 달려 있는 웃고름은 조선 중기까지 앞여밈의 실용적인 차원에서 사용되었으나 점차 장식적인 곡선의 미로 표현되었다. 넓은 포의 소매는 물건을 넣어두는 주머니의 역할도 하며, 바지의 넓은 허리를 단단하게 묶어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는 받침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무명이나 삼베로 된 전대는 바이어스로 넓고 길게 겹으로 재단하여 양끝에 담벧대, 담배쌈지, 부채같은 일용품을 끼워 매도록 실용성을 주었다.

(5) 위생성

조선복식은 천연소재로 인체의 생리적인 변화에 적합한 소재 특성을 가지며, 흰 동정, 끝동 그리고 거들지는 착용에 의한 더러움을 동정과 끝동만 교체해 줌으로써 방지할 수 있는 위생적인 기능미를 가진다. 풍성한 포는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고, 겨울에는 보

<표 1> 선의 기능미

기능미	활 용	선의 역할	선의 형태
편안성	실루엣	도로, 직형, 두루마기의 형태가 여유있는 H, A형의 실루엣.	직선과 곡선형태
	소매	관찰하고 우아한 선미의 소매	관찰한 선미
	깃	사선의 깃은 목의 움직임에 여유를 줌	사선
	바지저고리	여유있는 폭이 넓은 직선적인 실루엣 바지의 풍성함이 좌식생활에 편리함	직선적인 실루엣
활동성	도포의 트임	인체에 활동성을 주는 직선과 곡선의 유동미	직선과 곡선
	바지	사폭과 마루폭의 바이어스 재단방법으로 활동성을 줌	사선
	각반, 행전	바지부리의 활동성을 줌	직선
효율성	포, 바지저고리	옷의 형태와 용도변경이 가능(포, 바지저고리)	가변적 선미
	직선형 재단	직선형재단으로 모두에게 입혀지는 효율성	직선
실용성	웃고름	앞여밈의 수단이며, 동시에 곡선적인 선미표현	직선과 곡선
	전대	일용품을 끼워넣는 주머니 역할의 선미	직선
위생성	실루엣	풍성한 실루엣으로 보온성이 좋음	풍성한 실루엣선
	깃, 끝동	더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위생적인 선의 기능미	직선과 곡선

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7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28.

13) 趙權姬, “道袍에 대한 史的 考察 및 民俗學的 研究”-嶺東地域을 中心으로-, 한국외국학회지, 12권 1호, 1988, p.6

은에 좋은 실루엣을 가지며, 특히 바지의 풍성한 형태감이 보온성을 높여 준다. 위에서 살펴본 남자복식의 기능미를 <표 1>에 요약하였다.

2) 구조미

(1) 외부 구조선

① 포

조선시대 남자복식의 외부구조선은 포의 윤곽선 또는 실루엣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윤곽선의 구조적 특징은 포의 착용에 의한 풍성하면서도 직선적인 선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남자포체인 직령, 도포, 두루마기 (그림 2, 3)의 실루엣을 살펴보면 조선 전기에 활용되었던 직령의 경우 조선 전기에는 발목까지 오는 유연한 주름의 H형 실루엣으로 고려말 복식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조선 중기인 18세기에는 소매와 옆무의 폭이 넓고, 볼륨감있는 A형의 윤곽선을 나타낸다. 조선 후기인 18세기 중, 후기로 오면서 조선 중기 이후 도포의 착용이 많아지면서 19세기로 갈수록 풍성한 A형으로 되었다가 실학의 영향으로 품이 좁은 단소한 H형의 실루엣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국말 의제개혁으로 포제가 두루마기로 통일되면서 더욱 단소화된 H실루엣을 보여 준다.

포의 총길이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거의 변함이 없이 내려왔고, 조선전기의 소매형태는 풍채와 착수형의 길고 유연한 형태에서 중기에는 광수형의 풍성한 두리 소매형태가 많고 후기에는 단소화된 소매형을 보이고 있다. 소매길이와 소매넓이는 시대에 따라 변화 정도가 더욱 커 남자 포에 있어 변화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전기의 帶는 허리부분에서 여며지다가 18세기부터는 가슴부위로 점차 올라가며 대의 형태도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도포와 직령은 시대에 따라 포 길이의 변화라기보다 소매의 길이와 폭, 무형태의 변화와 실루엣에 의한 볼륨감의 변화라고 보여진다. 주의는 도포의 속옷으로 입기도 하고 상민들의 옷으로도 입었는데 조선 후기 의제개혁 이후 모든 포제가 두루마기 하나로 통일되어 남·여 모두 통상예복으로 착용하

였으며 현재의 두루마기와 유사하다¹⁴⁾.

② 관모

도포와 함께 착용해 온 갓 (그림 4)는 시대에 따라 많은 변천을 거듭했다. 남자 갓의 형태변화가 외부구조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주로 갓모자의 높고 낮음과 양태의 넓고 좁은 변화이다. 전기에는 갓모자가 둥글었던 것이 시대가 감에 따라 갓모자가 높아져 갔고, 조선 중기에는 갓모자와 양태가 가장 높고, 넓어지면서 후기로 갈수록 크기는 줄어들지만 그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조 남성 사치의 근간을 이루었던 갓은 대원군이 집정하면서 갓모자와 양태를 좁게 하였다.

③ 바지저고리

조선 전기의 저고리는 품이 넓고 길며, 화장이 매우 긴 풍성한 형태에서 말기로 가면서 무가 없고 품과 길이가 작으며 소매가 짧은 형태를 보인다. 바지역시 전기에는 품이 넓고 풍성한 형태에서 후기로 갈수록 마루폭과 비지부리가 좁아지고, 비지부리에는 각반이나 행전을 착용하여 활동적인 스타일로 변화했다.

남자 바지 저고리는 소재나 바느질법에 따라 외부구조선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여름용의 모시나 삼베 바지저고리는 직선적인 선미를, 겨울용의 무명이나 명주로 지은 바지저고리는 곡선적인 선미를 나타낸다. <표 2>에 남자복식에 나타난 외부구조선의 구조미를 요약하였다.

(2) 내부 구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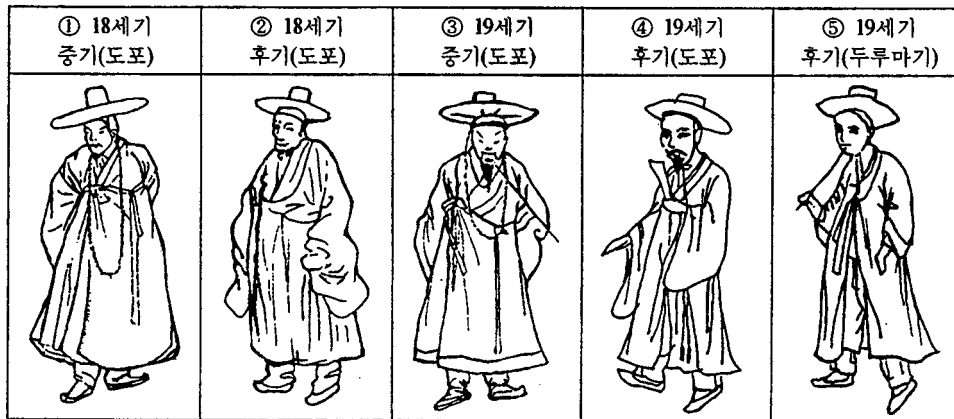
① 디테일

남자포의 깃은 칼깃, 둥근깃으로 변해왔고, 남자 저고리 깃은 조선 전기에서 중기에 이르면 목판깃이 당코깃으로 변하고 결무가 없어지는 변천을 거쳐 후기에는 당코깃이 동그레 깃으로 변하여 현재 남자저고리로 정착되었다. 남자포와 저고리의 깃은 여자의 깃에 비해 크고 굵은 직선과 곡선의 선미를 가지며, 조선 전기에는 목을 감싸는 굵고 긴 선의 미를 보여

14) 유희경, 앞책, p.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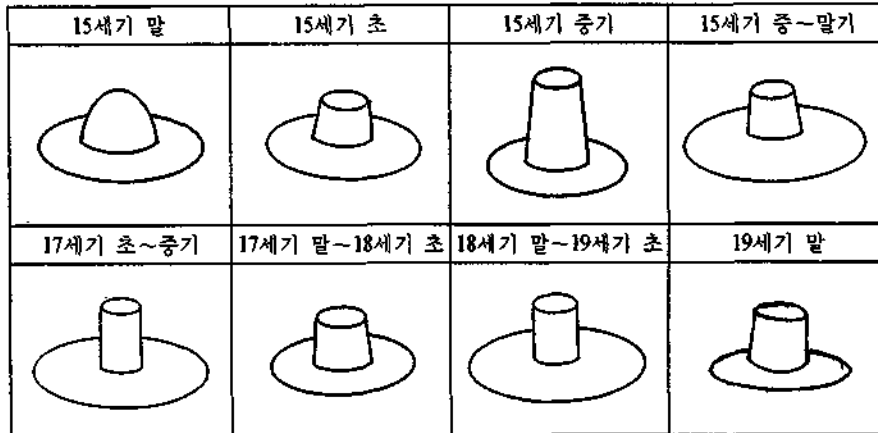


<그림 2> 직령의 시대별 외부구조선의 변화¹⁵⁾



<그림 3> 도포와 두루마기의 시대별 외부구조선의 변화¹⁶⁾

- 15) 출처: ① 한국의 미 20, 그림 100. ② 한국복식 제10호, p.7. ③ 조선통신사행렬도 제2권.
 ④ 한국의 미 19, 그림 25, ⑤ KBS 한국방송사업단, 韓國服飾圖覽(Ⅱ), 고려, 조선왕조, 1986. p.133.
 ⑥ 풍속화(들), p.101.
- 16) 출처: ① 동양의 명화2, 한국Ⅱ, 그림 61. ② 한국의 미 21, 그림 22. ③ 프랑스국립기예동양박물관, p. 97.
 ④ ⑤ 프랑스국립기예동양박물관, p.103. p.107.



<그림 4> 갓의 시대별 외부구조선의 변화¹⁷⁾

<표 2> 외부구조선의 구조미

구조미	활용부위	선의 역할	선의 형태
외부구조선	직령	조선전기는 풍성한 H 실루엣→중기는 풍성한 A →후기는 차분한 A로 변함	H →A→A실루엣
	도포	전기는 폭이 넓은 H→중기는 풍성한 폭이 넓은 A→후기는 단순화된 H형	H →A→H실루엣
	두루마기	형태변화가 거의 없으나 무와 섯의 폭이 좁아짐, 소매배래선의 변화가 있음	단소한 H실루엣
	관모	중, 후기로 갈수록 커지다가 말기에 작아짐	직선과 곡선
	바지저고리	풍성한 형태에서 다소 폭이 좁은 형태로 변함	곡선→직선

주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포의 단소화와 함께 갓이 작아지면서 곡선화 경향을 보인다.

갓 위의 흰 동정 역시 여자 동정보다 굵고 당당한 직선의 선미를 가진다. 옷고름은 후기로 갈수록 굵고 길어져 여법의 실용적인 목적에서 장식적인 선의미를 가지며, 갓과 동정의 연장선상에서 직선적인 사선, 유동적인 곡선미를 가진다. 도포의 특징이 되는 뒷자락은 양옆이 트여 있어 도포의 풍성한 멋을 더해주면서馬上時, 바람에 의해 흔들리는 여유롭고 우아한 직선과 곡선의미를 보여 준다.

남자의 버선은 여자의 버선과 형태가 같으나 여자버선은 가늘고 외씨 같은 버선이라면 남자버선은 단정하면서도 힘있는 곡선미를 가진다. 이러한 버선

은 남자복식의 의장미와 조화되는 선의미를 가진다.

② 구성선

남자복식의 구성선에 표현된 내부구조선의 시대적 변화를 더욱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출토유물 발굴보고서와 선행연구를 통하여 수집한 유물계측자료를 중심으로 직령 27점, 도포 18점, 두루마기 9점의 통계처리와 시대별 대표 유형으로 살펴본 결과 조선시대 남자포에 표현된 구성선은 대체로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단소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갓의 형태가 깔갓→등근갓으로, 소매형태가 콩태형과 착수형에서 광수의 두리소매로 변화해감을 알 수 있었다. 포의 세부구조선의

17) 출처: “우리나라 관모의 변천”, p.214. * 「복식」, p.96.

미는 조선 전기의 직선적인 것은 직선적인 소매와 도련선으로 조화되며, 후기로 갈수록 곡선적인 것은 곡선적인 소매와 도련선으로 나타나 포의 세부구조선이 시대에 따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남자 포 (직령, 도포, 두루마기)의 구성선의 변화 정도가 시대에 따라 유의차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옷길, 뒤편, 진동의 세 치수항목으로 통계처리한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조선시대 남자포의 시대별 유의차를 살펴본 결과 직령의 경우 옷길과 진동은 0.01수준에서 유의차가 나타났으며, 뒤편은 0.001수준에서 유의차가 나타나 직령은 시대에 따라 내부구조선의 형태변화가 뚜렷한 것으로 보여진다. 도포와 두루마기의 경우는 3항목 모두에서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아 도포와 두루마기의 경우는 내부구조선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유물계측자료의 부족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림 5>는 각 계측치의 평균값을 데이터로 하여 직령, 도포, 두루마기의 치수항목에 따른 시대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직령의 경우 옷길, 뒤편, 진동의 3항목 모두에서 시대별 변화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도포와 두루마기의 경우는 완만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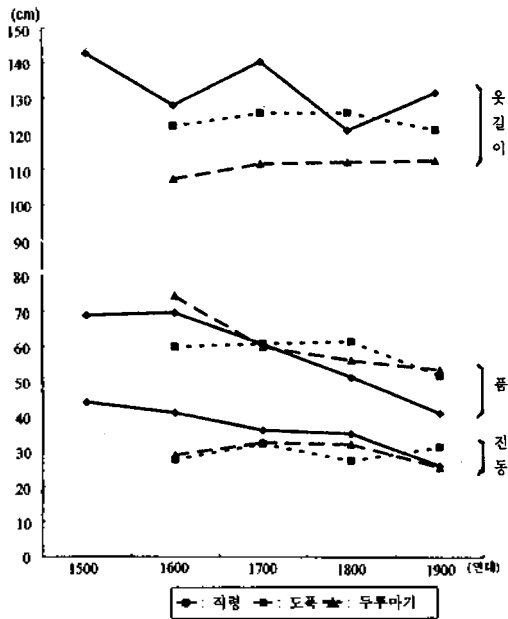
남자복식의 구성선에 표현된 내부구조선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유물치수를 중심으로 시대별 평균과 편차를 구하여 평균값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포의 대표 유형을 선정하였다.

직령의 경우, 15세기는 흥계강, 16세기는 신인식, 17세기는 이지원, 18세기는 흥회준, 19세기는 적포직령이 평균값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시대별 대표 유형으로 선정하였다. 도포의 경우 16세기는 전박장군, 17세기는 麻布도포, 18세기는 홍감보, 19세기는 안동김씨 도포를 대표 유형으로, 두루마기의 경우

<표 3> 시대별 직령, 도포, 두루마기의 평균값 및 분산분석결과

유형 항목	직령 (N=27)				도포 (N=18)				두루마기 (N=9)			
	시기	M	F-value	SNK	시기	M	F-value	SNK	시기	M	F-value	SNK
옷길	15	143.00	4.45**	a	15	.	0.97	.	15	.	0.21	.
	16	128.33		ab	16	122.50		a	16	107.50		a
	17	140.75		a	17	126.22		a	17	112.00		a
	18	121.45		b	18	126.33		a	18	112.50		a
	19	132.00		ab	19	121.63		a	19	113.00		a
뒤편	15	69.00	8.74***	a	15	.	1.80	.	15	.	1.43	.
	16	69.65		a	16	60.00		a	16	74.40		a
	17	60.70		ab	17	60.78		a	17	60.00		a
	18	51.20		bc	18	61.33		a	18	56.00		a
	19	40.90		c	19	51.63		a	19	53.30		a
진동	15	44.28	5.15**	a	15	.	1.28	.	15	.	0.81	.
	16	41.30		a	16	28.00		a	16	29.30		a
	17	36.33		ab	17	32.67		a	17	33.00		a
	18	35.40		ab	18	27.67		a	18	32.50		a
	19	26.30		b	19	31.75		a	19	25.90		a

*p<0.05, **p<0.01, ***p<0.001



<그림 5> 직령, 도포, 두루마기의 치수항목별 시대변화

16세기는 김덕령, 17세기~18세기는 홍우협, 19세기는 김병국의 두루마기를 대표유형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직령, 도포, 두루마기의 내부구조선의 변화를 <그림 6~8>에 나타내었다.

직령 (그림 6)의 조선 전기 깃은 칼깃형태이며, 조선 중기인 18세기 중엽부터는 약간 등근깃의 형태를 보이면서 19세기에는 등근깃으로 변해감을 알 수 있다. 깃의 크기와 폭이 후기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며, 쇠의 형태도 조선 중기인 17세기에는 2장의 쇠가 18세기부터는 한 장의 쇠로 되었다. 조선전기의 소매는 길이가 3폭으로 이어졌으나 후기로 갈수록 2폭으로 되었으며, 소매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소매폭이 풍태소매에서 광수의 두리소매로 변해가고 배래가 사선적인 곡선에서 소매폭이 넓은 직선과 곡선으로 변하였다. 옆무의 경우 조선 전기에는 큰 직사각형에서 후기에는 뒷길로 넘어가는 사다리꼴로 변화되었다. 직령의 실루엣은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단소해지고 있으며, 화장, 소매배래, 뒤품, 진동의

<표 4> 직령, 도포, 두루마기의 시대별 평균값에 의한 대표유형

유형	시기	착용 연대	착용자	고찰 항목					출 처		
				옷길이 (옷길이- 평균)	평균	뒤품 (옷길이- 평균)	평균	진동 (옷길이- 평균)		평균	
직령 (N=27)	전	15C	? ~1450	홍계강	138(-5)	143.00	70(+1)	69.00	44(-0.4)	44.28	(1) p.357
		16C	1519~1582	산언석	131(+2.7)	128.33	70(+1)	69.65	44.1(+2.8)*	41.30	(2-1) p.66
	중·후	17C	1617~1685	이지원	135(-4.3)	140.75	64(+3.3)	60.70	43.9(+7.6)*	36.33	(2-2) p.130
		18C	1761~1841	홍희준	120(-1.5)	121.45	58(+6.8)	51.20	37.5(+2.1)*	35.40	(2-3) p.134
		19C		저포직령	135.5(+3.5)	132.00	40.1(-0.8)*	40.90	23.4(-2.9)*	26.30	(3) p.286
도포 (N=18)	전	16C	? ~1592	전박장군	119(-3.5)	122.50	58(-2)	60.00	24(-4)	28.00	(4) p.70
		중	17C	1670년대	-	127(+0.8)	126.22	76(+1.2)	60.78	33.5(+0.8)	32.67
	후	18C	1669~1763	홍감보	129(+2.7)	126.33	58(-3.3)	61.33	25(-2.7)	27.67	(2-4) p.66
		19C	19C후~20C전	안동김씨	122.5(+0.9)	121.63	52.5(+0.9)	51.63	36.5(+4.7)	31.75	(5) p.191
두루 마기 (N=9)	전·중	16C	1566~1596	김덕령	108(+2.5)	107.50	74(-5)	79	29.5(+0.1)	29.4	(4) p.97
		17~18C	1667~1786	홍우협	112(-0.3)	112.30	60(+2)	58	33(+0.2)	32.8	(6) p.70
	후	19C	1825~1904	김병국	116(+3)	116.30	57(+3.7)	53.3	31(+5.1)	25.9	(7) p.199

(* : 비례치로 계산한 값), 출처¹⁸⁾

시기	각 부위		전체 모습	깃	소매와 배래
	저고리	밑			
전기	15세기	① 홍개강 (?~1450)			
	16세기	② 신인식 (1519~1582)			
중기	17세기	③ 이지원 (1617~1685)			
후기	18세기	④ 홍희준 (1761~1841)			
	19세기	⑤ 창덕궁유물 (19C전~20C후)			

<그림 6> 직령의 시대별 내부구조선의 변화

(①박성실, p.357, ②③④한국복식 17, 10, 12호, p.66, p.130, p.134, ⑤고복남, p.286.)

*전체모습: 실체크기의 1/53.3로 축소, **깃, 소매와 배래: 전체모습에서 30% 확대

변화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포(그림 7)의 내부구조선의 변화는 깃, 셔, 소

매, 무 등의 세부형태에서 살펴볼 수 있다. 조선 전기의 도포는 반달깃에 폭이 넓은 두 조각의 셔으로 되







시기	각 부위		전체 모습	깃	소매와 배래
	저고리	밑			
전기	16세기	① 전락장군 (?~1592)			
			중기	17세기	② 도포 (1670년대)
후기	18세기	③ 홍감보 (1669~1763)			
			19세기	④ 안동김씨 (19C전~20C후)	

<그림 7> 도포의 시대별 내부구조선의 변화

(① 忠北大學校 博物館編 調査報告 第 8冊 p.70 ② 고복남, pp.274~275, ③ 한국복식 13호 p.66, ④ 安東金氏墳墓掘調査報告書, p.191)

18)

- 1) 박성실, "조선전기 출토복식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p.357.
- 2) 한국복식, 「단국대 석주선 기념 민속 박물관」 10호, 1992, p.130
한국복식, 「단국대 석주선 기념 민속 박물관」 12호 1994, p.134.
한국복식, 「단국대 석주선 기념 민속 박물관」 13호 1995, p.66.
한국복식, 「단국대 석주선 기념 민속 박물관」 17호 1999, p.66.
- 3) 고복남, 「한국전통복식사 연구」, 일조각, 1986. p.286, p.274~275.
- 5) 안동김씨 분묘 발굴 조사 보고서, 「온양민속박물관」 1989, p.191, p.199
- 6) 충북대 조서 보고서, 1983, p.70, p.97.
- 7) 김영자, 김명숙, 장인우, 이수봉, 「조선시대 복식연구」, 학연문화사, 1999, p.70.

시기	각 부위		전체 모습	깃	소매와 배례				
	저고리	밑							
전기 16세기	① 김약령 (1566~1596)								
					중·후기 17~18세기	② 홍우엽 (1667~1786)			

<그림 8> 두루마기의 시대별 내부구조선의 변화

(① 忠北大學校 調査報告編 第 8冊, p.97, ② 김명숙, p.70, ③ 安東金氏墳墓發掘調査報告書, p.199)

어 있으며, 조선중기에는 등근 깃에 삶이 하나로 변화되었다. 도포의 깃은 다른 부위의 직선과 사선의 구조선이 모이는 중심지라고 볼 수 있다.

조선 중기의 소매는 화장이 긴 풍태형으로 17세기의 도포는 화장이 더 길어지고 풍성한 풍태소매로 변했고, 후기로 갈수록 화장이 짧아진 광수의 두리소매로 변했다. 소매 크기와 무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매 폭이 넓어질수록 무의 폭도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도포의 소매는 조선 중기에는 진동에서 수구까지 세 개의 구성선으로 이어질 정도로 소매길이가 길었으며, 조선 전·중기의 배례는 사선적인 곡선형태에서 후기로 갈수록 사각형에 가까운 두리소매로 변해 왔다. 도포는 조선 중기에서 후기에 이르기까지 총길이가 고대, 뒤폭의 변화폭은 적으나 화장, 소매의 변화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포는 소매의 수평선, 깃과 앞선단, 무의

사선, 밑단의 완만한 곡선으로 둘러싸인 수평과 수직, 사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뒷중심의 직선은 좌우에 뒷자락과 무의 직선과 사선으로 둘러싸여 뒷길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포는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는 직선과 완만한 곡선의 복식이라고 볼 수 있다.

두루마기 (그림 8)은 포처럼 풍성하지는 않지만 착수의 편안한 곡선배례이며, 화장은 긴 편아 아니고 유연하고 실용적이다. 폭이 좁은 무가 달려 있어 완만한 끝단을 가지며,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소매배례선의 변화외에는 거의 현재 두루마기형과 유사한 선미를 가진다.

조선시대 남자저고리의 삶은 삼국시대부터 긴 저고리가 점점 짧아짐에 따라 안섵, 결섵, 결무가 넓어지면서 저고리의 품이 넓어졌다. 전기의 저고리는 옆선에 무가 있는 품이 넓은 형태였으나 후기에는

무가 없어진 직선의 옆선으로 품이 좁아지면서 앞도편선이 완만한 곡선형태에서 직선적인 선미를 보인다. 저고리의 소매는 길에 직선이 되게 봉제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며, 저고리의 배래는 포처럼 풍성하지는 않지만 편안한 사선의 형태를 가진다.

바지의 밑바대와 사복은 조선 중기까지도 공존하다가 조선 말기부터는 완전히 큰 사복, 작은 사복으로 구분되어 하나의 독자적인 양식을 이루게 된다¹⁹⁾.

이러한 큰 사복과 작은 사복, 마루복, 허리의 띠로 이루어진 바지의 구조선은 수평과 수직, 사선의 구조적인 선미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5>는 복식에 표현된 내부구조선에 의한 구조미를 요약한 것이다.

③ 트리밍

직령의 좌·우 옆선에 부착된 옆무와 액주름 등

<표 5> 내부구조선에 의한 구조미

구조미	활용부위		선의 역할		선의 형태	
내부구조선	디테일	세부디테일	포	깃	칼깃→둥근깃으로 변천 밑단에서 올라오는 직선과 사선의 중심지	굵은 사선
				동정	굵은 흰 동정이 의복전체의 중심 역할	사선
			웃고름	깃에서 연장된 직선적인 사선	유동적인 직선	
			뒷자락	도포의 풍성함을 더해 주며, 우아한 직선과 곡선의 선미 표현	직선과 곡선	
			바지저고리	깃	목판깃→당코깃→둥그레 깃으로 변천	굵은 사선
				동정	흰색의 굵은 사선으로 얼굴을 강조하면서 복식 전체의 중심	사선
	웃고름	점차 굵고 길어져 장식적인 직선과 곡선의 역할		유동적인 직선		
	버선	단정하면서 힘있는 격식미와 날렵한 곡선미		곡선		
	구성선	부위별구성선	포	설	긴 사다리꼴 형태로 직선과 사선의 선미	사선
				무	측면 양쪽의 무 형태가 사선의 구조미	사선
				트임	착장에 의한 동적인 선미	직선과 곡선
				뒷중심	뒷길의 중심역할	직선
				소매	후기로 갈수록 짧아지나 소매 폭은 넓어져 풍성한 소매의 주름선이 생김	직선과 곡선
				배래	사선의 형태에서 두리 소매 형태로 변함	직선과 곡선
			바지저고리	설	여자 저고리에 비해 길고 넓은 설	사선
				도련	곡선 도련에서 직선 도련으로 변함	곡선→직선
				뒷중심	저고리, 배자의 뒷 중심은 뒷길의 무게 중심역할	직선
				소매	길에 직선으로 봉제	직선
배래				편안한 곡선 배래	곡선	
트임				활동을 위한 공간적 여유 부여	직선과 곡선	
트리밍	주름선 장식선	직령, 바지, 소매	직령의 무에 의한 착장 드레이프, 바지와 소매의 풍성함으로 인한 드레이프	직선적인 곡선		
		선, 시접처리	포의 가장자리 시접을 굵게 처리하여 장식선으로 표현	직선과 곡선		

19) 고복남, 앞책, pp.163-164.

자연스럽게 생기는 주름과 드레이프는 포의 트리밍으로 독특한 직선과 곡선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풍성한 바지허리와 바지부리를 대나 끈으로 묶어 줌으로써 나타나는 주름선 그리고 광수의 길고 풍성한 포의 소매주름 또한 착장에 의해 표현되는 드레이프에 의한 트리밍의 역할을 한다.

장식선인 포의 끝등, 앞선단, 단의 시접을 굽은 선의 가장자리로 트리밍 처리한 것도 포 전체에 남성적인 담백한 직선미의 요소이다.

3) 장식미

(1) 관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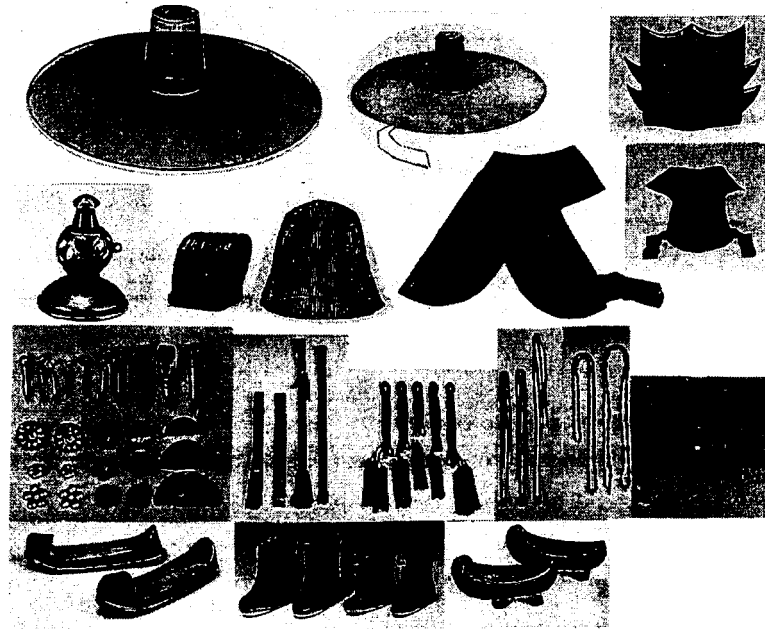
의례를 중시한 조선사회는 의관을 갖춘다고 하여 옷에 못지 않게 관모를 중요시했다. 관모제는 용도나 신분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였으며, 화려함보다는 의례적인 위엄과 격식을 갖추고 있다.

흑색이면서도 투명한 맛을 가진 흑립은 특히 섬세하고 아름다운 직선과 곡선의미를 보인다. 巾은

맨상투 위에 갓 대신 사용하며, 망건이나 탕건은 재료나 형태에서 간결하고 품위있는 선의미를 보인다. 흑립이나 정자관은 학자적인 풍모의 담백한 남성미가 느껴지는 선의 절제미를 보여 주고 갓장식과 상투관은 단아한 곡선미로 장식적인 선미를 보여 주며, 갓에 달린 갓끈 또한 남자복식에 빼놓을 수 없는 선의미를 표현해 준다. 남자의 겨울용 쓰개인 휘항이나 남바위 또한 여자쓰개와는 달리 수수하면서도 단아한 곡선미로 복식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2) 문 양

남자복식은 금박이나 자수보다는 직조문양이 많으며, 線紋, 이방연속문, 연속방향, 회전방향, 반복과 변화에 의한 문양을 보이고 있다. 또 복식의 용도에 따라 문양이 달리 사용되었는데 남자포에는 봉황, 雲紋 등의 직물문양이, 배자에는 근자바탕, 용, 포도, 난 등이 있으며²⁰⁾, 대체로 동물문이나 雲紋 등이 표현되어진다. 이러한 문양표현은 단순한 복식에 직선과 곡선의 선미를 더해 주는 요소로 여겨진다.



<그림 9> 남자복식의 수직 및 장식구
(국립민속박물관, 은양민속박물관 소장)

20) 이경자, 「한국복식사론」, 일지사, 1991, p.303.

(3) 장신구

남자복식의 장식적인 요소인 帶, 부채, 선추 등에서 선비의 품격있는 선미를 느낄 수 있다. 사대부의 포에 매는 조대는 폭이 넓은 廣多會와, 폭이 좁은 細組帶가 있고, 남자의 속옷에 매는 대를 抹帶라 한다. 도포나 직령 위에는 세조대를 가슴 높이에서 매었는데, 품관에 따라 착용색이 달랐고 다양한 색이 있어 제도를 떠나 자유로이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손에 드는 부채는 더위를 식히는 기능만이 아닌 선비의 품체와 어울리는 멋을 표현해 낸다. 부채살은 한지나 비단, 모시 등으로 다양했으며, 부채의 면에는 그림이나 시, 글씨, 온갖 문양을 넣어 풍취를 살리거나 부채손잡이에 선추를 달아 주었다. 이 선추에는 합향이나 이쑤시개, 귀이개, 도장 같은 것을 넣어 다닐 수 있게 하였는데 선추는 여유있게 흔들리는 곡선미를 표현해 준다. 담뱃대 역시 유희자극한 선비의 멋을 고조시키며, 직선적인 선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남자복식의 장신구는 늘어뜨리거나 흔들림에 의한 선의 유동미를 표현하고 있다.

(4) 신

혹혜, 태사혜, 목화에서 보이는 신발의 상침장식과 문양에서 나타나는 유선형의 선미는 복식과 조화

되는 한국적인 품위와 단아함을 느끼게 한다. 조선조에 남, 여, 노, 소, 상, 하의 구별없이 유행되었던 신발형태인 나막신은 소박하면서도 편안한 곡선미를 보여 준다. <표 6>에 복식에 표현된 선의 장식미를 요약하였다.

4) 착장미

조선시대는 남성위주의 사회구조로서 학문과 사회생활에 전념했던 사대부 남자들은 의례적인 측면에서 복식의 착장미를 중요시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림 10)

(I) 포

남자 포는 넉넉하게 목을 감싸는 넓은 깃과 어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관활한 소매,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풍성한 형태로 중후함을 내포한 직선과 곡선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포는 풍성한 바지가 밑받침 역할을 하여 A라인의 실루엣을 형성하며, 웃고름과 세조대, 갓끈의 직선미와 소매의 풍성한 주름이 전체 착장미에 영향을 미치며 착장자의 거동에 따라 선비의 인품과 풍취를 엿볼 수 있다.

남자복식 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여자복식의 깃보다 크고 당당한 직선형태로 얼굴을 강조하

<표 6> 선의 장식미

유형	활 용	선의 역할	선의 형태
관모	립(혹립)	간결하고 품위있는 섬세한 선미	섬세한 직선과 곡선
	건(정자관, 탕건)	학자적인 풍모를 느낄 수 있는 절제된 담백하고 날렵한 선미	직선과 곡선
	갓끈	흔들리는 두식의 선미	유동적인 선미
	상투관, 갓장식	단순한 형태와 단아한 곡선미	단아한 곡선
	휘향, 남바위	수수하면서 단아한 가장자리의 곡선미	수수한 곡선
문양	직물	동물이나 운문 등의 선문, 이방연속문 등의 선미	직선과 곡선
	배자	긴, 용, 난 문양의 선미	곡선
장신구	부채, 선추	늘어뜨림에 의한 여유있는 동태적 선미	직선과 곡선
	대대, 세조대	절도있는 선비의 품격있는 선미	직선과 곡선
신	혹혜, 태사혜, 목화	가장자리 상침장식의 기품있는 단아한 선미	곡선미
	나막신	소박하면서도 편안한 곡선미	곡선미



〈그림 10〉 남자복식 착장도

① 「한국미술」, 그림 173, ② 「프랑스 국립기예동양 박물관」, p.93, ③ 「한국의 미 20」, 그림 57

는 선의미를 나타낸다. 도포와 직령, 두루마기는 착장에 의해 소매선과 밑단선이 조화되어 곡선적인 선의미를 표현해낸다. 남자한복은 전체실루엣과 세부구조선에서 세로선과 가로선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갓과 어깨, 허리에 착용한 대와 끝단은 가로선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갓과 앞어미, 쇄, 실루엣에서 흐르는 직선적인 주름, 갓끈과 세조대의 늘어뜨린 끈은 세로선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가로선과 세로선은 수평과 수직선에 의한 조화로 남자복식에 절도있는 복식미를 표현해 준다. 포의 A라인 실루엣은 위로 향하는 착시를 일으켜 키를 커 보이게 한다. 또한 착장에 의한 포의 직선적인 드레이프는 길이 방향의 착시가 일어나며, 갓에 의해 시선이 위로 올라가거나 갓끈으로 시선을 길게 늘어뜨려 아래, 위의 양 방향에 의한 착시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사선의 균형을 잡아 준다. 복식의 색상보다 질은 세조대나 대대, 부채 등도 길이 방향의 착시가 유발된다. 남자복식은 평면 재단에 의한 단순미로 인해 선에 의한 착시가 일어나 키가 더 커 보이거나 성숙한 남성의 복식미를 표현해 준다.

남자복식은 계절 또는 지방에 따라 옷감의 재질, 짓는 방법, 착의법, 푸새 등이 다르며, 나타나는 선의

미 또한 다르다. 한복이 가진 단순미로 인해 소재의 재질감이나 바느질 방법이 복식의 선미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모시나 삼베와 같은 여름용 소재로 만든 홀도포나 직령, 바지저고리, 적삼은 섬세하면서도 거칠고 뽀뽀하며 투명한 직선으로 표현되는 반면, 목면이나 실크와 같은 겨울용 소재는 유연한 직선과 곡선의미를 보여 준다. 겨울용 의복인 솜을 든 누비옷은 전체적으로 중량감있는 소재감으로 차별하면서도 중후한 선의미를 느끼게 한다. 또한 남자한복의 실루엣과 내부구조선은 동물문이나 雲紋 등의 조합에 의한 線紋, 이방연속문 등, 반복에 의한 연속적인 선의 느낌으로 문양과 좋은 조화를 이룬다.

(2) 바지저고리

바지허리 부분의 여유 있는 주름과 바지 부리에서 나오는 풍성한 주름으로 착용시 활동성과 풍성한 형태미를 나타낸다. <표 7>은 복식의 착장미를 요약한 것이다.

2. 내재적 선미

한국복식의 미적 가치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로 필자의 줄고^{21,22)}를 비롯한 금기숙²³⁾, 김영자²⁴⁾, 김윤

21) 도주연, "이신우와 이영희 의상에 표현된 한국전통복식미의 비교연구", 성심외국어대학 산학연구논문집, 제 19권 2호, 1999.

22) 도주연, 권영숙, 앞논문, 제8권 2호, 2000.

23) 금기숙, "조선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표 7> 선의 착장미

외형적 선미	유형	선의 역할	선의 형태
착장미	포제	여유있는 포의 직선적인 선의 미 소매의 풍성한 주름미 포의 A라인 실루엣은 키를 커보이게 하는 착시 갓, 갓끈, 세조대와 대대, 부채 등의 길이에 의한 착시를 일으킴.	직선과 곡선
	바지저고리	H, A 실루엣의 밑받침 역할	직선과 곡선

<표 8> 한국복식의 미적가치

	한국복식의 미적가치			
	자연미	인격미	벽사의 미	전통미
금가숙(1987)	자연미	인격미	벽사의 미	전통미
김영자(1990)	정적미	격식미		단정미
김윤희(1998)	자연성	금욕성	관능성	순수성
최세완(1992)	자연주의적 미	의례적 미 보수성향의 미	주술적미	
김인경(1995)	형태미	정신미	표현미	
도주연, 권영숙(2000)	자연미	절제미		소박미
본연구(남자복식)	자연미	의례미	풍류미	

회²⁵⁾, 김인경²⁶⁾, 최세완²⁷⁾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남자복식에 표현된 선의미를 자연미, 의례미, 풍류미로 분류하여 복식에 내재된 선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연미

한국 고대 사상에 내포된 미적 감정의 원형은 天神思想으로 자연의 순리에 따라 조화롭게 살고자 하는 心性을 바탕으로 한 자연주의 정신이다.

한국 복식은 인체의 선을 드러내지 않은 평면형의 특성을 가지며, 自然觀에 바탕을 둔 자연스런 선의미를 가진다. 남자포제인 도포와 직령, 두루마기는 은은하고 담백한 자연색과 소재 느낌으로 복식의 구조선이 그대로 살아나는 정갈한 복식형태가 특징이다. 바지저고리 등도 문양이나 색채보다는 복식의 형태를 그대로 살린 정갈한 백색과 소재색으로 자연색

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자연색에 대한 애착이 선의 특징을 가진 의복을 낳았으며, 최소한의 장식에 의한 평면형의 복식형태와 무채색 조화로 선의 요소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복식이다. 또한 자연으로부터 얻은 삼베, 모시, 명주, 무명 등의 소재 느낌을 그대로 살린 거칠고 투박한 직물과 곱고 정교한 직물 등을 통해 자연적인 선의미를 강조하였다.

또한 한복은 음양의 자연적인 이치가 조화된 직선과 곡선의 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음은 부드러움이고 양은 강함이다. 따라서 음은 곡선으로, 양은 직선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양이 강조된 남자복식은 직선이 많이 쓰이고, 음이 강조된 여자복식은 곡선이 많이 사용된다. 이것은 남자포제나 바지저고리 등에서 보이는 구조선들이 대체로 직선의 선미를 보이고 있는 것에서 남자복식이 양의 자연적인 이치를 가진 복식임을 알 수 있다. 청렴결백한 절개

24) 김영자, "한국복식미의 연구-예의관과 표현미를 중심으로-", 세종대학 박사학위논문, 1990.
 25) 김윤희, "현대 한국적 복식에 나타난 인체와 복식에 대한 미의식", 서울대학 박사학위논문, 1998.
 26) 김인경, "혜원 신윤복 풍속화에 표현된 복식미의 연구", 복식 25, 1995.
 27) 최세완,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를 지녔던 선비의 자태는 넓은 소매의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걸어가는 모습에서 자연과 합일하려 했던 남자복식의 멋을 느끼게 한다.

2) 의례적 미

한국복식의 의례적 미의식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유교사상으로, 의관의 정제로 이루어진 조선시대 남자복식은 의례와 절차를 중시한 유교 이념에 의한 것이며, 다양한 의관과 포의 구성, 착장에 의한 풍성한 형태감으로 착용자의 위신과 체통을 중시한 의례적인 미의식을 표현하였다.

선비복에서 볼 수 있는 흰 도포와 검은 갓의 무채색 대비는 색채의 절제를 통한 금욕주의적 유교이념을 실현하였으며, 최소한의 장식으로 면과 선을 절약하면서도 무한의 크기와 변화를 추구하여 단정하면서도 의례적인 복식형태를 추구하였다.

3) 풍류미

관할한 여유를 가진 남자복식에는 학문과 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즐긴 조선시대 양반들의 멋이 깃들여 있다.

흑립과 갓끈, 목을 높게 감싸는 단정한 갓과 흰 동정, 허리를 묶는 띠와 바지의 대넙으로 절제미를 갖추었고, 길고 폭넓은 소매 자락, 직선과 곡선의 윽무, 우아한 뒷자락과 도련의 곡선이 어우러져 호방한 패기와 여유를 가진 풍류적인 복식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유유자적한 걸음걸이와 손에 쥔 담배대나 부채 끝에 달린 선추의 흔들림, 부채에 새긴 시와 그림 등이 어우러져 풍류적인 복식미를 한층 더 높여 준다. 이와 같이 남자복식에는 예를 중시한 절제된 복식미와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여유가 함께 어우러져 정(靜)과 동(動)의 복식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IV. 선의 미적 특성

조선시대 남자복식에 표현된 선의 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평면재단으로 제작된 남자복식은 남성적인 성격의 직선과 사선, 곡선의 외부구조선과 내부구조선이 조화를 이룬 관할한 복식형태이며,

저고리의 동정, 갓, 섶, 고름 등의 부동의 직선 도련과 소매 배래선의 유동의 동적 곡선이 잘 조화되어 있다.

2. 남자복식은 기능적인 선의미를 가진다. 바지의 사폭에 의한 바이어스 재단의 활동성, 동정과 끝동에 의한 위생성, 여유있는 평면구조에 의한 복식의 효율성을 가진다.
3. 대대, 새조대, 옷고름, 대넙은 여명의 기능적인 역할과 장식적인 역할을 함께 표현한다. 부채와 선추, 담배대 등도 장식적인 선의미를 나타낸다.
4. 남자관모(흑립, 정자관, 망건이나 탕건, 갓 장식, 상투, 갓끈 등)는 섬세하면서도 단순, 날렵한 장식적인 선미를 가지며, 복식의 선미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5. 남자복식의 재질감에 있어 화려하고 다양한 비단류는 유연한 곡선미, 소박하고 질박한 목면과 마포류는 편안한 곡선미, 그리고 모시는 그윽하고 우아한 선미, 겨울용의 누비운은 중후한 선의미를 느끼게 한다. 한복이 가진 단순미로 인해 재질감이 복식의 선미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6. 평면재단에 의한 단순미와 내부구조선과 외부구조선에 의한 착시로 인해 키가 커 보이거나 품위있는 남성미를 표현하며, 옷을 여러 겹 입음으로써 겹침에 의한 직선과 곡선의 아름다운 착장미를 보여 준다.
7. 남자복식에 표현된 선미는 자연주의 철학에 바탕을 둔 무한한 깊이와 멋을 추구한 자연스런 선이다. 거기에 의례와 절차를 숭상하여 다양한 사회의식이 반영된 관모와 포를 착용한 의례적인 복식이며, 풍류를 즐길 줄 아는 관할한 형태의 복식미가 내재된 미의식을 가진다.

V. 결 론

조선시대 남자복식의 선미를 복식미학과 복식의 장학의 측면에서 외형적 선미와 내재적 선미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한복은 우리 선조들의 미적 감각과 복식 디자인의 원리와 요소로 만들어진 문화적 소산이며 여자복식과 조화되는 독특한 선미를 반영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앞으로 문헌자료와 실증유물에 대한 분석적 고찰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조선복식의 선미를 낚, 여 복식뿐만이 아닌 서인복과 아동복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중국과 일본복식의 선미와 비교해 본다면 한복에 표현된 한국적 선미의 위치를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 강순계, “우리나라 관모의 변천”, 한국복식 2천년, 1995.
- 국립민속 박물관, 「한국복식 2천년」, 국립민속박물관, 1995.
- 국립민속 박물관, 한국의 아름다움(옷, 장신구, 도자기)」, 국립중앙박물관, 1988.
- 국립문화재연구소, 프랑스국립기메박물관소장 한국 문화재.
- 高福男, 「韓國傳統服飾史研究」, 一潮閣, 1995.
- 김영자, 「패션디자인」, 경춘사, 1992.
- 김영자, “한국복식미의 연구-예의관과 표현미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김영자, 김명숙, 장인우, 이수봉, 朝鮮時代服飾研究, 학연문화사, 1999.
- 金英淑,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8.
- 金英淑, “18세기 여자저고리 옷길이 변화요인에 관한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9/3, 1986.
- 琴基淑, 「朝鮮服飾美術」, 열화당, 1994.
- 琴基淑, “조선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김운화, “현대 한국적 복식에 나타난 인체와 복식에 대한 미의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김인경, “혜원 신윤복 풍속화에 표현된 복식미의 연구”, 복식 25, 1995.
- 도주연, “이신우와 이영희 의상에 표현된 한국전통 복식미의 비교연구”, 성심외국어대학 산학연구 논문집, 19/2, 1999.
- 도주연, 권영숙, “조선복식에 표현된 선(線)의 미(美)에 대한 고찰”, 복식문화학회, 제 8권 4호, 2000.
- 孟仁在(갑수), 「韓國의 美 20 (人物畫)」, 중앙일보사, 1985.
- 박성실, “조선전기 출토복식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 박용숙, 「한국의 미학사상 - 바시미의 구조 -」, 일월서각, 1990.
- 백영자, 「한국의 복식」, 경춘사, 1992.
- 손경석, 이상규 해설, 「사진으로 보는 朝鮮時代 - 생활과 풍습 -」, 서문당, 1996.
- 삼성출판사, 동양의 명화2 (한국II), 조선후반기의 회화, 1985.
- 삼성출판사, 동양의 명화1 (한I), 조선전반기의 회화, 1985.
- 안동김씨 분묘 발굴 조사 보고서, 「은양민속박물관」, 1989.
- 이선행, “朝鮮時代 儒敎思想과 儀禮服研究 - 男子袍를 中心으로 -”, 복식 16, 1991.
- 이혜영, “포의 실증적 분석에 관한 연구”, 복식 28호, 1996.
- 李恩株, “道袍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 기능론적 분석”, 서울여대 박사학위논문, 1999.
- 유희경, 「한국복식 문화사」, 교문사, 1981.
- 은양민속박물관, 「사진과 해설로 보는 은양민속박물관」, 1996.
- 은양민속박물관, 「朝鮮時代의 冠帽」, 1988.
- 溫陽民俗博物館, 「安東金氏墳墓發掘調查報告書」, 1989.
- 아이화, 「우리겨레의 전통생활」, 여강출판사, 1993.
- 이상우, 「동양미학론」, 시공사, 1999.
- 이경자, 「한국복식사론」, 일지사, 1983.
- 이은영, 「복식의장학」, 교문사, 1993.
- 이태호, 조선후기회화의 사실정신, 학교재, 1996.
- 이태호, 풍속화 (하나), 대원사 (빛깔있는 책들), 1997.
- 이태호, 풍속화 (둘), 대원사 (빛깔있는 책들), 1998.
- 조근희, “道袍에 대한 史的 考察 및 民俗學의 研究 -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12/1, 1988.
- 趙孝順, “조선조 風俗畫에 나타난 男子의 基本服飾 연구 (II)”, 한복문화학회지, 2/1, 1999.
- 최세완,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최순우, 한국미술, 조선 I-II, 도산문화사, 1982.

忠北大學校 博物館 調査報告 第 8冊, 壬亂前後 出土
服飾 및 喪禮, 1983.

韓國의 美 8, 민畫, 中央日報社, 1985.

韓國의 美 21, 金弘道, 中央日報社, 1985.

韓國의 美 19, 風俗畫, 中央日報社, 1985.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韓國服飾」, 10호~17호
1992-1999.